

더 젊어진 박정희·육영수... 업그레이드 된 '뮤지컬 박정희'

현장 인터뷰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작한 창작뮤지컬 '뮤지컬 박정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난 2·3월 부산 초연 당시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매진행렬을 기록했던 '뮤지컬 박정희'는 음악과 대본, 출연진을 대폭 수정·교체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6월 17~20일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노트르담 드 파리' 등에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와 가창력을 선보인 배우 최수형과 4인조 팝페라그룹 '엘블렌테' 멤버 김민균이 박정희 역으로 더블캐스팅 돼 보랏빛고개를 넘어 '산악화 시대'를 일군 거인의 발자취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육영수 여사 역은 걸그룹 '더씨아' 출신 송민경이 맡아, 청아하면서도 기품이 있었던 고인의 면모를 그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은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과 영화 '마스터', '마왕' 등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노민아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초연에서 각각 '마을 원로'와 '부녀회장' 역으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던 배우 김영수와 신시은은 이번에도 동일한 배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웃음꽃을 선물할 전망이다.

개그맨 최국과 송치호도 감초 역할로 작품 곳곳에 나와 극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가세연이 '뮤지컬 박정희'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건 주연 배우들의 교체 소식이었다. 초연에서 박정희·육영수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정도원과 김효선이 가세연과 결별하면서 과연 어떤 배우들이 두 사람의 빈 자리를 메울지 귀추가 주목됐다.

다음은 '뮤지컬 박정희' 서울 공연의 주연을 맡은 최수형·송민경·노민아·김민균과의 일문일답.

-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나 과정 등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최수형(박정희 대통령 역) = '뮤지컬 박정희'의 박정희 역을 제안받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님과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님을 만나뵙고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경(육영수 여사 역) = 제가 알기로는 최수형 선배님이 워낙 활동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 회사 측(가세연)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배님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호호.

▲최수형 = 아닙니다. (웃음) 저도 오

디션을 보고 절차를 밟아 합류하게 됐습니다.

- 박정희라는 인물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대한 인물인데, 이런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는지요?

▲최수형 =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출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실존했던 인물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저희는 연기자고, 작품을 만들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 자, 그럼 송민경 씨의 따님이시죠? 노민아 씨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연유로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되셨는지요?

▲노민아(박근혜 전 대통령 역) = 워낙 부모님께서 제가 연기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너무 좋은 기회라며 해보라고 적극 권유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역을 맡게 됐습니다.

- 박정희 역을 맡으신 또 다른 배우, 김민균 씨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균 = 오디션을 볼 때 사실 다른 배우도 염두에 두고 오디션을 봤어요. 저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는데, 오디션 직후 더블캐스팅으로 가야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도 박정희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컸습니다. (웃음)

-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최수형의 박정희'와 '김민균의 박정희'를 놓고, 편이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민경 = 주변 분들 반응을 들어보니, 둘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성향이 다르다보니.

▲김민균 = 아마도 제작진이 저희 두 사람의 성격이나 나타나는 성향으로 볼 때 박정희라는 캐릭터를 여러가지 결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최수형 씨는 굉장히 남성다운 분이세요. 상남자, 마초적인 기질이 있으신데, 저는 약간 섬세한 편이거든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였기 때문에 다양한 면모가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한 내면의 대조적인 모습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잘 표현돼 있습니다.

- 최수형 씨도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최수형 = 일단 저는 군인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장군이나 군인, 악역처럼 센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이셨기 때문에 남자다운



(왼쪽부터)박정희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 최수형, 육영수 여사 역을 맡은 배우 송민경, 박근혜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 노민아, 김재규 역을 맡은 배우 김민균. 사진=뉴데일리D3

가로세로연구소가 제작한 창작뮤지컬 송민경 “육영수 역 제안받고 부모님이 더 기뻐하셔”

김민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였던 박정희 그리고파” 노민아 유일 생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 맡아 “코로나 시국에 공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

면모가 많으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과 있으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죠. 따라서 남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다양한 것들을 연기하려고 노력했고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 등을 표현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송민경 씨는 육영수 여사를 책으로만 접하셨죠? 그래서 캐릭터를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민경 = 교과서로만 봤던 분인데, 이번에 캐릭터를 맡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서 평소 성격은 어떠셨는지, 좋아하셨던 음식까지도 찾아보며 연구를 많이 했죠. 특히 영부인으로서는 어떤 성향이셨고, 어떻게 국민을 대했을 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은 제가 35살이기 때문에 여사님이 49세까지 어떤 느낌으로 사셨을 지에 대해 느낌을 잡기가 어려웠죠. 일단 여사님의 젊은 시절은 제 느낌으로 가고, 그 이후의 삶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 송민경만의 육영수 여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기 하기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노민아 =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데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장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

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 연습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다면?

▲송민경 = 저는 원래부터 뮤지컬에 도전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반갑게 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저의 첫 뮤지컬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뭘 하든 힘들지도 않고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배우들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노민아 =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 일인데요. 배우 여러분께서 많이들 챙겨주셔서 (웃음) 정말 편하게 잘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국에 이런 공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

운 일이잖아요. 이런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배우들이 정말 많은데, 좋은 기회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했어요. 정말 한 달간 놀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웃음)

▲최수형 = 인터뷰는 저희 4명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보다 앙상을 배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고, 수고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다들 에너지가 엄청나셔서,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연기에 임하고 계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앙상을 배우 분들의 다양한 연기를 주목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런 배려심까지...,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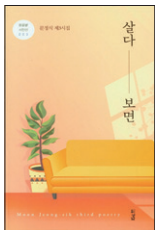
▲최수형 = 어휴, 과찬이십니다. ▲김민균 = 지금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명성왕후'나 '영웅'도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창작 뮤지컬이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형 기자



시간 서적

살다 보면

문정식 지음
경남 펌
127쪽 10,000원



집 살까요? 팔까요?

전인수 지음
갈라박스 펌
240쪽 13,800원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꾼다

오진현 지음
굿웰스북스 펌
304쪽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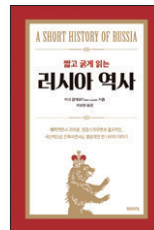
중국의 조용한 침공

클라이브 해밀턴 지음
세종서적 펌
500쪽 22,000원



짧고 굵게 읽는 러시아 역사

마크 갈레오티 지음
미래의창 펌
231쪽 15,000원



비밀정보기관의 역사

볼프강 크리거 지음
에코리브르 펌
504쪽 25,000원



100편의 시가 만남과 이별, 아쉬운 행복, 허무한 이쁨, 마지막 바람 등 4개 섹션에 수록됐다. 사랑·행복·슬픔 등을 주제로 애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정겨움 등 다양한 감정이 진솔하게 담겼다. 지난 2005년 7월 시사문단을 통해 등단한 저자는 한국시사문단작가협회, 한국문인협회, 마산문인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시집 제목처럼 살면서 그때 그때 느낀 감정을 시 한편 한편에 고스란히 담았다. 살다 보면 시집을 통해 회로애락이 담긴 인생사를 함께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지난 2014년과 지난 2018년에 ‘언젠가 한번은’과 ‘인연 고리’를 출간했다.

현직 은행원(KB국민은행)인 저자가 고객, 지인 등에게 제공했던 실제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엄선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는 이사, 매매, 임대, 대출, 채테크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사례가 포함돼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금융권의 축적된 근무 경험과 부동산학 박사의 전문성이 기반이 된 저자의 컨설팅 사례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에 공감하면서 ‘집’다운 ‘집’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 우리들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을 이끌 기술은 블록체인이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빠르면서도 느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자 오진현은 “미래의 부를 주도하며 살 것인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독자에 던지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공유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본질, 가상화폐의 올바른 투자법까지 큰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입문서다. 초보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핵심 개념을 한 권에 잡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중국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은 중국 기업과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기 좋은 정책을 만들고, 중국 기업들은 호주의 땅과 기업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인다. 언론사가 중국에 불리한 기사를 실는다면 중국 공산당은 광고를 빼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중국의 입맛에 맞는 역사, 문화 교육이 진행된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은 베이징이 호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넓히는지를 그 전략을 파헤치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민낯을 분석한다.

“러시아는 미래가 분명한 나라다. 다만 과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책 표지를 넘기면 먼저 알송달송한 러시아 속담이 나온다. 미국 뉴욕대 국제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는 러시아를 광대한 영토만큼 알기 어려운 나라로 규정했다. 9세기 류리크 왕조를 시작으로 제정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소비에트 지배, 최근 푸틴 대통령까지 권력이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이뤄졌다. 역사를 왜곡했다는 부정적 관점이 아니라 광대한 영토, 다양한 종교와 문화 등을 지닌 러시아의 복잡한 정체성이 이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이다.

신간 ‘비밀정보기관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첩보 활동과 관련 기관의 역사를 짚어본다. 프랑스와 영국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첩보 경쟁부터 나치 정권에서의 독일 비밀 정보 업무, 냉전 시대 미국과 구 소련의 스파이 활동, 그리고 미국 비밀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전방위 감찰에 이르기까지, 독일 역사가인 저자가 세계사 곳곳에서 나타난 비밀스러운 활동과 관련 사건들을 소개한다. 책은 무엇이 옳다거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